

IFRS® 재단 재정지원 안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

TEL 02) 6050-0186 FAX 02) 6050-0170 E-mail : yoonji.kang@kasb.or.kr

한국회계기준원 

“ IFRS는
세계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IFRS 제정에 모두 동참합니다. ”

IF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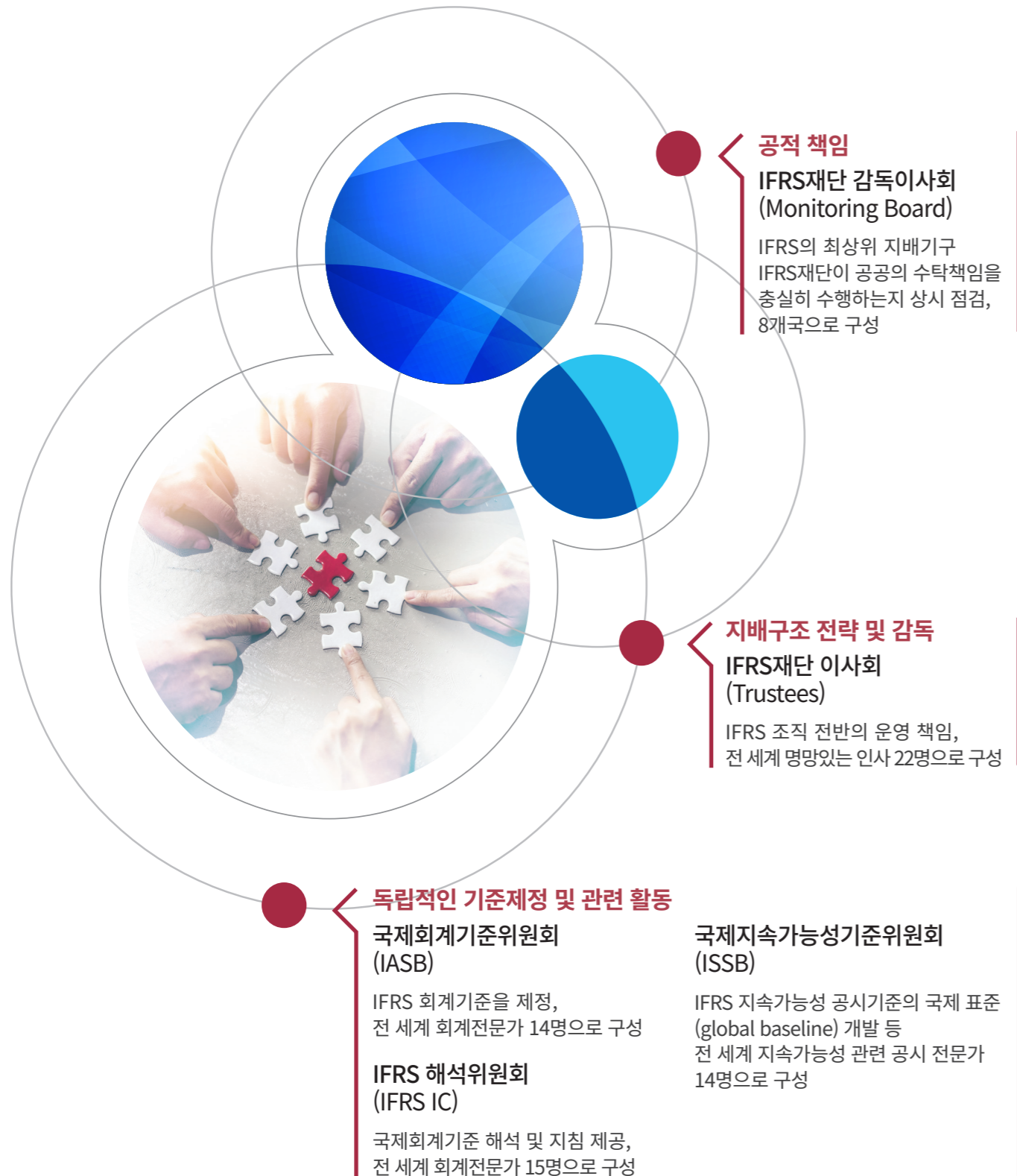
IFRS재단은

고품질의 이해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IFRS 회계기준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하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 단체입니다.

IFRS재단이 제정하는 기준(IFRS® 회계기준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전문 기준 제정 기관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및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에서 담당합니다.

IFRS재단의 임무는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투명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IFRS 기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IFRS재단의 임무는 세계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성장 및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IFRS재단 조직



IFRS는 IFRS재단이 중심이 되어 세계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문 기구

공식 자문 기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및 IFRS재단이 여러 다양한 배경과 지역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조언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IFRS 자문평의회	Integrated Reporting and Connectivity Council (IRCC)
------------	--

IASB 자문 및 협의체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ASAF)	Capital Markets Advisory Committee (CMAC)	Global Preparers Forum (GPF)	Islamic Finance Consultative Group (IFCG)
Emerging Economies Group (EEG)	IFRS Taxonomy Consultative Group (ITCG)	SME Implementation Group (SMEIG)	

ISSB 자문 및 협의체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SSAF)	ISSB Technical Reference Group (ITRG)	ISSB Investor Advisory Group (IIAG)	Sustainabil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
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 on IFRS S1 and IFRS S2 (TIG)			

IFRS재단 주요활동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되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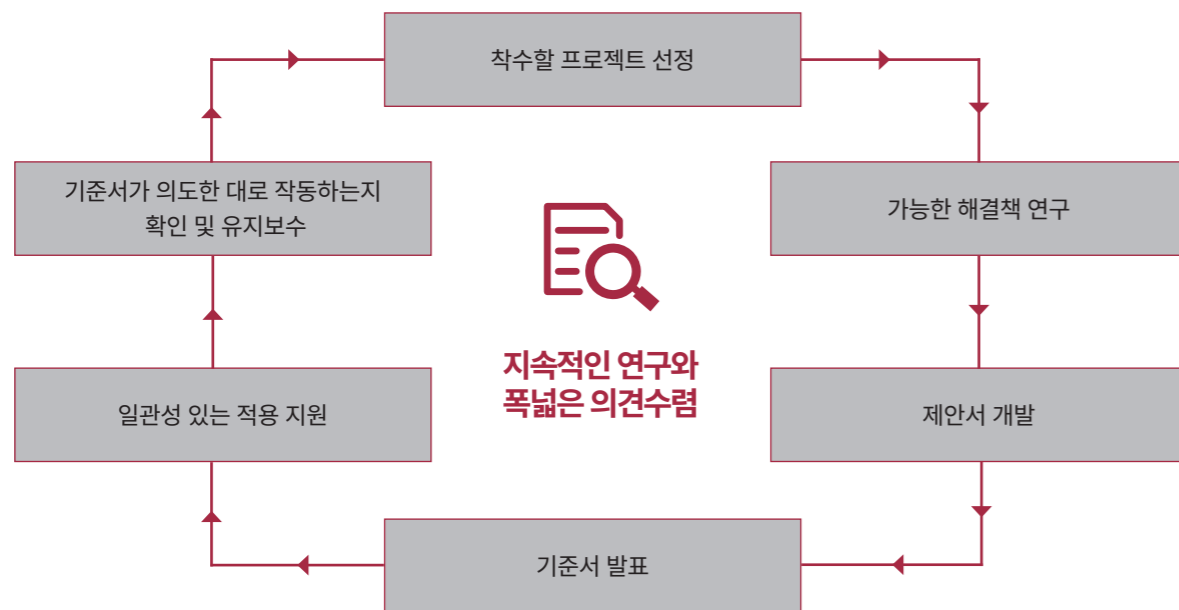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IFRS재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고품질의 IFRS 회계기준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기준을 제정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IFRS 기준을 확산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교육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제정 절차

IFRS재단은 IFRS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에게 기준 제정 사실 및 내용을 알리고 발생가능한 이슈사항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전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반영한

기준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규절차감독위원회(Due process oversight committee)라는 소위원회를 통해 해당 기준의 개발이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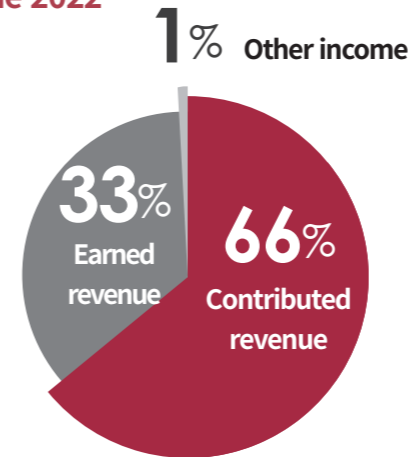


IFRS재단이 고품질의 IFRS 회계기준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무안정성과 충분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IFRS재단에 대한 국제적 기대도 증가하여 필요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국가별 기부금으로 운영

Income 2022



국가별 기부 61% 회계법인 5%

국가별 기부금(61%, 4,051만 달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회계법인 기부금(5%, 339만 달러), 교육·서적판매 등 자체수입 등(34%, 2,158만 달러)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Q. IFRS재단은 왜 자발적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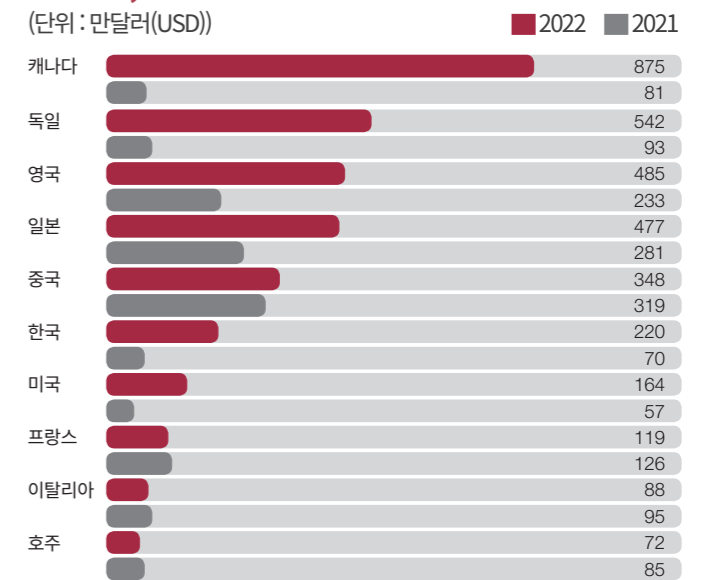
A. IFRS재단은 외부의 영향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IFRS 회계기준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금조달을 일부 국가 또는 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의 재정지원 참여

IFRS재단 재정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전세계 단일의 고품질 IFRS 회계기준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구축하자는 지구촌 공익목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IFRS 회계기준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주도권을 선점하고 IFRS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은 IFRS재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주요 국가별 IFRS재단 기부현황



Q. 국가별 기부금의 규모는 어떻게 정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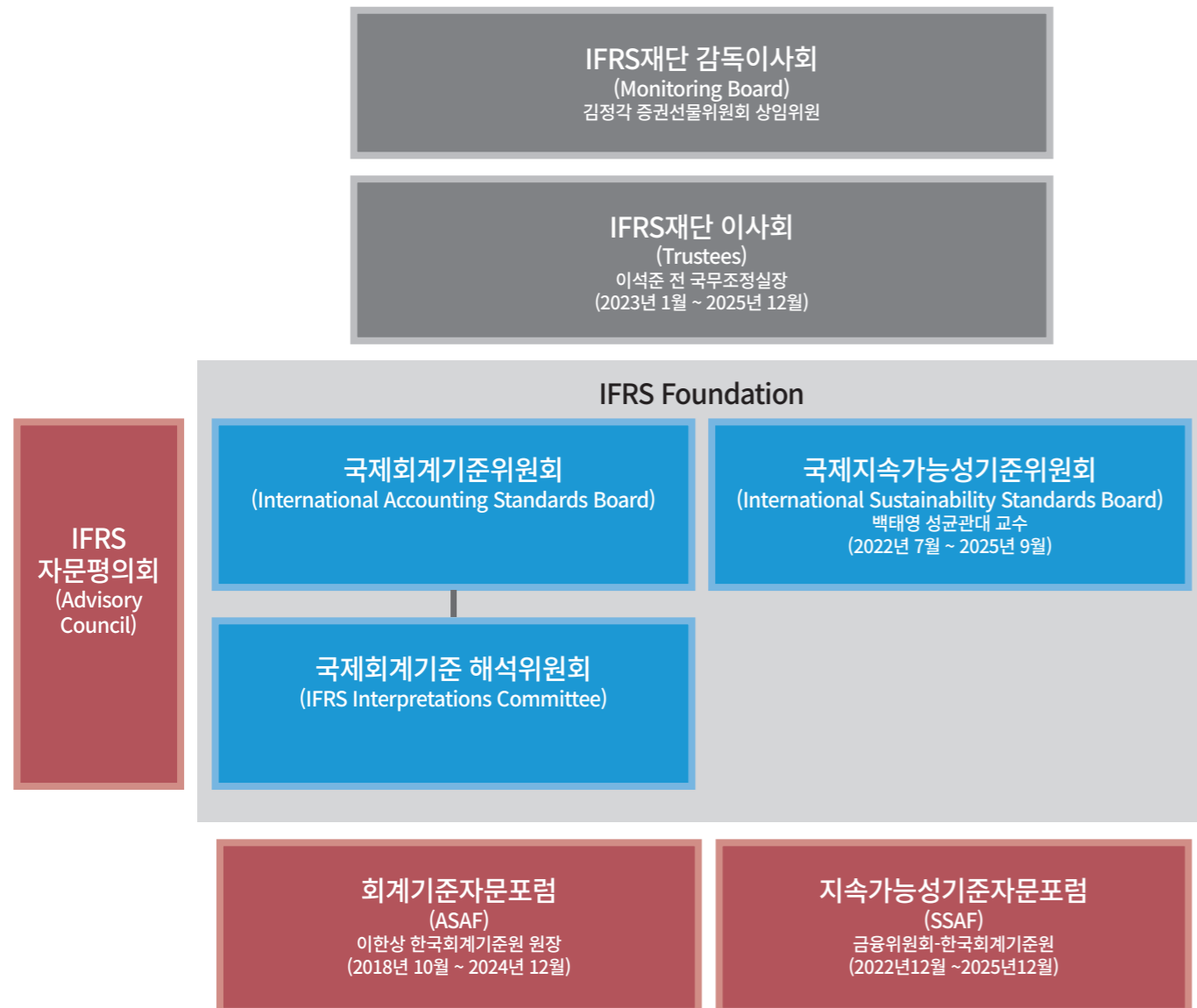
A. 국가별 기부금은 IFRS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입니다. IFRS재단은 IFRS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GDP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많은 나라들이 최소 납부금액 이상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IFRS재단은 2021년 11월 ISSB를 설립하였으며, 향후 5년간의 안정적인 ISSB 운영을 위한 초기설립 자본을 추가적으로 조달하였습니다.

한국은 매년 70만달러 금액을 기부하고 있었으며, 2022년에는 ISSB 초기 설립 자본 15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여 총 220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IFRS 제정을 위한 한국의 활발한 참여

IFRS재단의 주요 조직에 한국인 인사가 진출하여 활약하며, 고품질의 IFRS 회계기준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기여하고 있고 IASB 및 ISSB에서 의견조회하는 안건 선정, 기준 공개초안 등 모든 회계 및 지속가능성 공시 이슈 등에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인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고품질의 **IFRS 회계기준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참여**하기 위해 **IFRS재단의 재정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나 특성을 IFRS 기준에 반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IFRS 기준 제정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IFRS 회계기준 제정 과정에 한국 의견을 반영한 사례

- | | |
|---|--|
| 위험회피회계
2010년 12월 IFRS 개정 공개초안 반영 | 환율변동효과
2012년 12월 '외화환산' 프로젝트를 연구 프로젝트로 채택 |
| 선분양공사계약
2012년 2월 해석위원회 논의 후 IFRS 개정 공개초안 반영 | 보험프로젝트
2015년 4월 Fresh Start, 회계단위 통합, CSM의 공정가치 측정 의견 반영 |
| 정부보조금
2012년 3월 IFRS 1 개정 | 법인세 불확실성
2017년 6월 해석서 발행 |
| 영업손익 표시
2012년 4월 K-IFRS 반영 | 회계추정
2021년 2월 회계추정치 정의 제시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SSB는 2023년 6월 26일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기준서(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G7 및 G20를 포함하여 40개국 이상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ISSB 기준 제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서에서 ISSB의 기준제정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ISSB 기준이 글로벌 무대의 표준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표준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 제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정보 공시는 국내 기업의 신뢰도를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이점을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ISSB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부금 참여



IFRS재단 재정지원 참여 기업 (63개, 2007년-2022년)

기부금액	기부기업
8억원 이상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삼성전자, 한국회계기준원 (4개 기업)
2억원 이상 8억원 미만	삼성물산,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KB금융지주, 안진회계법인,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삼성SDS, 삼성증권, 신한금융지주, 현대자동차 (14개 기업)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GS칼텍스,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기아, 삼성SDI,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POSCO, IBK기업은행, KT, LG전자, S-Oil,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셀트리온, 우리은행, 한국전력공사 (17개 기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STX, KB국민은행, KT&G, LG,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화학, NHN, NH농협금융지주, 동양증권,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쇼핑, 삼성엔지니어링, 신한은행, 카카오,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모비스, 효성 (21개 기업)
5천만원 미만	한국산업은행, 한전KPS, KCC, STX메탈, STX엔진, STX조선해양, 팬오션 (7개 기업)

한국기업의 기부방법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2천만원 이상 (통상 5천만원 단위로 납부) 자유롭게

기부방법

일시 납부 혹은 분할 가능



담당

한국회계기준원 IFRS 재단 재정지원 사무국

Tel : 02-6050-0186, 0160, 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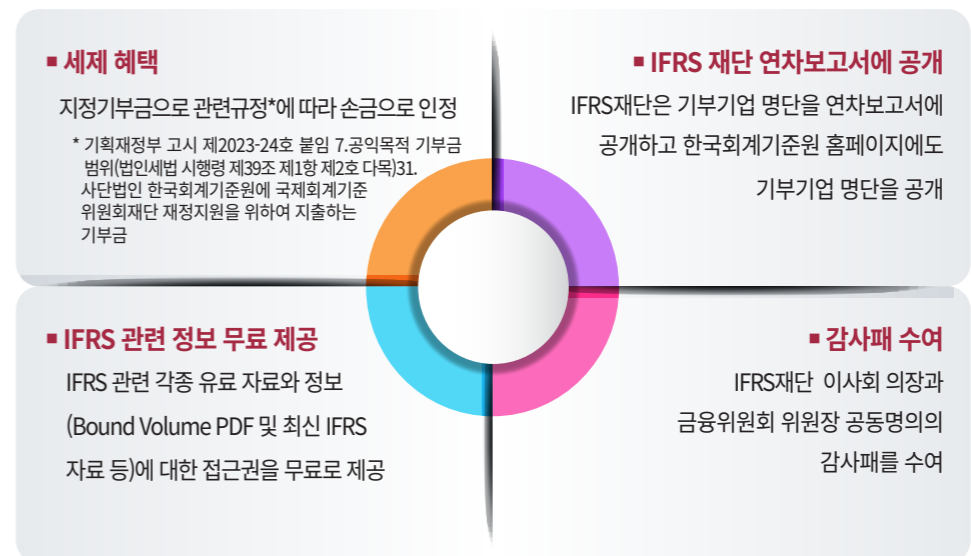
e-mail : yoonji.kang@kasb.or.kr

Address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우편번호 : 04513)

www.kasb.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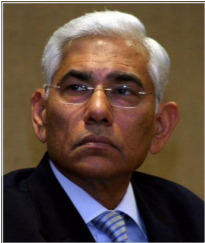








참여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IFRS재단 재정지원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 정보제공, 감사패 수여 등이 주어집니다.

















Trustees IFRS Foundation

At June 2023

 Erkki Liikanen Chair	 Teresa Ko Vice-Chair	 Larry Leva Vice-Chair		
 Dame Colette Bowe Trustee	 Koushik Chatterjee Trustee	 Jorge Familiar Trustee	 Dr Suresh P. Kana Trustee	 Masamichi Kono Trustee
 Sukjoon Lee (이석준) Trustee	 Michel Madelain Trustee	 Steven Maijor Trustee	 Ross McInnes Trustee	 Robert Pozen Trustee
 Vinod Rai Trustee	 Lucrezia Reichlin Trustee	 Kenneth (Ken) Robinson Trustee	 Isabel Saint Malo Trustee	 Erhard Schippreit Trustee
 Sarah J. Al Suhaimi Trustee	 Keiko Tashiro Trustee	 Maria Theofilaktidis Trustee	 Wencai Zhang Trustee	



Board member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t June 2023

 IASB Chair Andreas Barckow Term expires: 30 June 2026	 IASB Vice-Chair Linda Mezon-Hutter Term expires: 31 August 2027		
 Nick Anderson Term expires: 31 August 2025	 Patrina Buchanan Term expires: 30 November 2027	 Tadeu Cendon Term expires: 30 June 2024	 Florian Esterer Term expires: 31 March 2028
 Zach Gast Term expires: 31 July 2025	 Hagit Keren Term expires: 29 February 2028	 Jianqiao Lu Term expires: 31 August 2025	 Bruce Mackenzie Term expires: 30 September 2025
 Bertrand Perrin Term expires: 30 June 2026	 Rika Suzuki Term expires: 30 June 2024	 Ann Tarca Term expires: 30 June 2025	 Robert Uhl Term expires: 31 August 2027

Board members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At June 2023

 <p>ISSB Chair Emmanuel Faber</p> <p>Term expires: 31 December 2024</p>	 <p>ISSB Vice-Chair Jingdong Hua</p> <p>Term expires: 30 September 2026</p>	 <p>ISSB Vice-Chair Sue Lloyd</p> <p>Term expires: 28 February 2026</p>
---	---	---



Richard Barker
Term expires:
30 September 2026



Jenny Bofinger-Schuster
Term expires:
30 November 2027



Verity Chegar
Term expires:
30 June 2027



Jeffrey Hales
Term expires:
30 June 2027



Michael Jantzi
Term expires:
30 September 2025



Hiroshi Komori
Term expires:
30 September 2025



Bing Leng
Term expires:
30 September 2026



Ndidi Nnoli-Edozien
Term expires:
30 September 2026



Tae-Young Paik (백태영)
Term expires:
30 September 2025



Veronika Pountcheva
Term expires:
30 September 2027



Elizabeth Seeger
Term expires:
30 September 2025

